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2년도 제35호

[성명서] 2022.09.01

반성 없이 자기 부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를 규탄한다!

스포츠인권연구소, 문화연대 대안체육회, 체육시민연대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스포츠인권연구소, 문체부 비판 “혁신위 권고 재검토, 무책임해”

김경윤 연합뉴스 기자

특별기획 : 클린스포츠 어디까지 왔나

‘최속헌법’ 그 후... “스포츠 윤리센터, 징계 권한도 가져야”

김동윤 스타뉴스 기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심석희 선수 문자 메시지 공개한 조재범 전 코치 가족 1명 기소

이승욱 한겨레 기자

스포츠 학폭

‘이영하 김대현 기소’ ...프로야구 학폭 다시 수면 위로

문성대 뉴시스 기자

여자테니스 전설 세리나 윌리엄스 은퇴

모든 차별에 끝까지 맞선 영웅의 장엄한 퇴장

윤은용 경향신문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반성 없이 자기 부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를 규탄한다!

- 학교운동부는 소수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학생에게 열린 스포츠 공간이 되어야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8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에서 권고한 '주중 대회 참가 금지 등 3개 권고'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학생선수 대회 참가 관련 제도'라며 빠른 시일 안에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스포츠인권연구소, 문화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공동으로 문체부의 이번 발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문체부의 이번 판단은 지속불가능한 학교운동부의 현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처사이다.

학습권을 보장하려면 주중 대회개최 관행부터 타파하라!

문체부의 판단대로 '출석 인정 결석일수'가 늘어나 주중 대회가 많아지면 훈련 시간이 증가하여 학생선수의 수업결손이 더욱 많아지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혁신위가 주말 대회개최 권고를 한 지 수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체육단체는 이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주중대회 금지와 주말대회 개최로 시합이 줄어들면 당장이라도 전문체육이 망할 것처럼 떠들었다. 지난 2년 동안 전세계적 전염병으로 대회가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은 종목이 준비해도 결코 망하지 않았다. 체육단체가 대회를 개최하면 어쩔 수 없이 참가해야 하는 학생선수의 현실을 볼모로 학생선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주중대회 개최 관행을 지금까지 외치고 있다.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할 정부 기관에서 오히려 체육단체와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문체부의 이번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에 보장된 학습권 보장의 책무를 무시한 채 진행되는 이번 발표는 교육부의 '공부하는 학생선수' 양성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문체부의 스포츠 개혁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을 더욱 높이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또한 혁신위는 다른 부처가 아닌 바로 문체부 산하에 설치되었던 민관이 함께 참여한 위원회였다. 스포츠계의 굵아 터진 반인권적인 실태를 개선하고자 각고의 노력과 수많은 논의를 거쳐 스포츠계 혁신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였으며, 문체부와 교육부 차관이 참여하여 서명한 문서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문체부가 혁신위 권고안을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폄하하는 행태는 너무나 무책임하다. 왜 개혁이 멈추고 거꾸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반성 없이 시류에 편승한 무책임한 금번 발표는 스포츠계의 반인권적 실태를 묵인하는 것을 넘어 더욱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학교는 직업선수가 아닌 학생을 기르는 곳이다!

'출석 인정 일수 축소 및 학기 중 주중 대회 금지' 권고는 신유빈, 김나영, 조세혁 선수처럼 직업선수가 될 학생들이 아닌 대다수 직업선수가 되지 못하는 학생선수들에게 헌법에 근거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학생선수들은 전문체육인재 조기육성이라는 명분에 따라 운동부 가입과 동시에 선수등록을 해야 했으며, 체육특기자로 별도 관리되면서 훈련과 대회출전을 이유로 수업에 빠지는 것을 당연시해 왔다. 경기단체는 주중 대회개최는 물론 초등생부터 일반부까지 한꺼번에 참가하는 대회를 자신들 편의대로 개최해 왔다.

그러나 주지하듯 전체 학생선수 중 직업선수가 될 확률은 10%가 되지 못한다. 그나마 직업선수라도 평균 은퇴가 23세이며, 은퇴 후 41.9%가 무직이고, 취업을 해도 46.8%는 한 달 2백만원도 채 벌지 못한다. 대한체육회가 파악한 대한민국 전문체육의 현실이다. 문체부는 극소수의 직업선수를 양성하기 위해 대다수 학생선수의 학습권 침해를 조장하고, 그로 인해 다른 직업을 준비해야 할 대다수 학생선수의 기초소양의 기회를 박탈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것인가?

주말 대회 전환에 쓰일 예산을 축소하겠다는 문체부의 자기부정도 문제지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헌법에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 '학습권'을 '운동권'이라는 있지도 않은 개념과 동급으로 다뤘다는 점이다. 역사에 길이 남을 부끄러운 발표가 아닐 수 없다. 수업에 빠지고도 '훈련하고 대회에 참가'하면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 일반 국민에게 물으면 뭐라 답할지 너무나 분명하지 않은가? 학력에 따라 진급과 졸업의 기준을 공정하게 가려야 할 교육기관에서 운동만 하면 진급과 졸업을 시켜주겠다는 전근대적 발상을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할지 참담하다.

2022년 9월 1일

스포츠인권연구소, 문화연대 대안체육회, 체육시민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문체부 비판 “혁신위 권고 재검토, 무책임해”

스포츠인권연구소와 문화연대 대안체육회, 체육시민연대는 스포츠혁신위원회(혁신위) 권고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문화체육관광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세 단체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체부의 판단은 지속 불가능한 학교 운동부의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아울러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주중 대회가 많아지면 훈련 시간이 증가해 학생 선수의 수업 결손이 더 많아질 것"이라면서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할 정부 기관이 체육단체와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다. 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의 권고안 재검토 방안은 자기 부정적인 행위라고 꼬집기도 했다.

세 단체는 "혁신위는 문체부 산하에 설치됐던 위원회"라며 "이제 와서 문체부가 혁신위 권고안을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깎아내리는 행태는 매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문체부는 지난달 29일 혁신위 권고안 중 현실에 맞지 않은 점이 있다며 보완·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특히 ▲ 출석 인정 일수 축소 및 학기 중 주중 대회 금지(교육부) ▲ 학기 중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문체부) ▲ 소년체전 개편(문체부·교육부)에 관한 권고안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 지원사업 축소 등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2019년 2월 체육계 인권 침해, 일명 스포츠 '미투'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혁신위는 시민단체, 스포츠 인권, 체육계 등 민간위원과 문체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 차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7차례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현실과 동떨어진 혁신위 권고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문체부는 지난 6월부터 혁신위 권고 내용을 다시 들여다봤다.

“스포츠윤리센터, 징계 권한도 가져야”

스포츠의 장점이자 존재 이유는 '공정'과 '깨끗함'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그러해야 한다. 그러나 잘못된 관행과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체육계에는 여전히 폭력과 불법의 어두운 그림자가 남아 있다. 훈련 중 가혹행위, 음주운전, 그리고 학교 폭력 등이 잇을 만하면 불거져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스타뉴스는 창간 18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클린 스포츠'의 현주소와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스포츠국

< 특별기획 : '클린 스포츠' 어디까지 왔나 >

① '최속헌법' 그 후... "스포츠 윤리센터, 징계 권한도 가져야"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줘."

2020년 6월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속현(당시 22세) 선수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이 한 마디는 폭력에 둔감한 대한민국 스포츠계에 경종을 울렸다.

최 선수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소속됐던 경주시청팀 감독, 운동치료사, 팀 선배 2명으로부터 가혹행위를 시달렸다.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2020년 2월 경주시청에 신고한 것을 시작으로 3월에는 가해자 4인을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4월에는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6월에는 대한철인3종협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각 단체의 대응은 미온적이었고 최 선수는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국회는 사건으로부터 두 달 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최속헌법)'을 통과시켰고 해당 법안은 2021년 2월부터 개정 시행됐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산하의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 지원센터 등을 통합해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했다. 지난해 11월에는 1년에 걸친 조사와 법정 공방 끝에 가해자들에게 징역 4년과 7년 등의 처벌이 확정됐다.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최속헌법의 핵심은 스포츠 윤리센터의 역할이다. 지도자의 (성)폭력 등 스포츠 비리를 알게 된 경우 스포츠 윤리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신설됐고,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할 스포츠 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됐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스포츠 윤리센터는 직권조사권, 공무원 파견요청권, 수사기관 신고·고발권, 체육단체에 대한 징계요구권 등의 권한을 갖고, 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거짓 응대가 적발될 시 문체부 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매년 실시되는 스포츠 윤리센터의 교육을 통해 예전보다 폭력 금지에 대한 인식이 넓어진 점은 긍정적이다. 스포츠 폭력과 관련해 꾸준히 의견을 내온 박현애(46·체육학 박사, 스포츠 인권강사) 씨는 "(2년 전과 비교해) 확실히 인식이 달라진 것을 느낀다. 예전에는 자신이 겪은 일이 문제인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알고 싶어도 알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교육을 통해 어떠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인식이 생겼다.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포츠 폭력 관련 창구가 일원화된 것도 긍정적이다. 스포츠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는 한민희(39) 변호사는 "과거에는 피해 사실이 있을 때 보통 연맹이나 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했다. 그뿐 아니라 대한체육회, 문체부 등에도 진정을 넣곤 했는데 단체마다 해석이 달라 징계도 천차만별이었다. 그 때문에 선수들의 불신이 깊었다. 최속헌법을 통해 스포츠 윤리센터로 창구가 일원화된 것은 긍정적이다. 또 스포츠 폭력과 비리에 대해 정의하고 제도를 정비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할 점은 남아 있다. 2022년 1월 기준으로 스포츠 윤리센터의 정원은 초창기 26명에서 45명, 조사 인력은 13명에서 30명으로 확대됐으나, 모든 고충을 소화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 변호사는 "스포츠 윤리센터가 징계까지 관리하는 등 업무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만큼, 관련 법령과 규정의 보완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포츠 윤리센터는 현재 각 연맹 및 협회에 징계 요청을 할 수 있을 뿐 직접적인 징계 권한은 없다. 여전히 실질적인 징계는 각 체육 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 초창기부터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박현애 씨는 "스포츠 윤리센터는 징계를 직접 내릴 수 있는 기관이 아니고, 권고만 할 수 있다 보니 결국 협회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회가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해당 조치는)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포츠 윤리센터 측은 "한계를 느끼기보다는 점차 누적되는 데이터를 통해 문제를 개선하고, 기관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심석희 선수 문자 메시지 공개한 조재범 전 코치 가족 1명 기소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문자 메시지 등을 불법 촬영 및 유포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코치의 가족 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 손정숙)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 전 코치의 가족 ㄱ씨를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ㄱ씨는 조 전 코치의 변호인 의견서에 있는 심석희 선수의 문자 메시지를 언론사에 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배포된 내용 중 심 선수의 신체 사진 등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검찰은 조 전 코치와 ㄱ씨 등 가족 4명에게 적용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심 선수가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

앞서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한 심 선수의 휴대전화 자료를 입수한 뒤 사적인 문자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곳이 조 전 코치 쪽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2차 가해 지적이 일었다. 스포츠인권연구소도 지난해 10월18일 "대법원 최종 선고를 앞둔 피고인 조재범이 변호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 조재범이 재판에 계류된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광범위한 사적 정보를 적나라하게 언론매체에 제공한 행위는 불법이자 피해자 흠집 내기를 통한 의도적 보복이며 명백한 2차 가해"라고 했다.

언론 등에 공개된 이 문자메시지에는 심 선수의 동료 비하와 고의 충돌 의혹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로 인해 심 선수는 지난해 12월 동료 비하 등과 관련해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이 무산됐다.

한편 심 선수를 상대로 약 3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조 전 코치는 지난해 12월 징역 13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영하 김대현 기소’... 프로야구 학폭 다시 수면 위로

프로야구계에 다시 한 번 '학교 폭력'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고교 시절 야구부 후배에게 학교 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와 현재 군복무 중인 LG 트윈스 투수 김대현이 결국 법정에 선다.

지난달 8월31일 야구계에 따르면 두 선수는 최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영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군인 신분인 김대현은 군사법원에서 시비를 가린다.

이영하와 김대현의 폭행 논란이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해 2월이었다. 두 선수 모두 현재까지 폭행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BO리그는 판결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만약 이영하와 김대현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출장정지, 제재금 등의 징계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에 수 년 전부터 학교체육의 만연한 폭력 문화를 뿌리 뽑아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즉시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되고, 피해자에 대한 고려를 중심으로 과거에 발생했던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해 구단 및 협회 등의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키움 히어로즈 안우진 역시 과거 학교 폭력에 연루된 바 있다. 2018년 1차 지명으로 키움 유니폼을 입은 투수 안우진은 당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안우진에게 3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선수는 올림픽,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영원히 선발될 수 없다.

하지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 선발은 가능하다. WBC는 메이저리그(MLB), 일본야구기구(NPB) 등 프로들이 출전하는 대회라서, 규정으로 안우진의 WBC 출전을 막을 근거는 없다.

NC 다이노스는 2021년 1차 지명으로 선택한 투수 김유성의 지명을 철회하기도 했다.

NC는 "지명 과정에서 과거의 사실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것에 사과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당시 프로 입단이 무산됐던 김유성은 올해 다시 KBO리그 구단의 지명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프로야구 학교폭력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프로 입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KBO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 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 이행에 따라 신청서와 함께 재학 중 징계, 부상 이력을 포함해 학교 폭력 관련 서약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본인 동의 하에 제출해야 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 거짓말 또는 허위로 보고한 후 프로에 입단할 시, KBO와 구단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

모든 차별에 끝까지 맞선 영웅의 장엄한 퇴장

여자 테니스의 위대한 전설, 세리나 윌리엄스(605위·미국)의 '라스트 댄스'가 장엄하게 막을 내렸다. 그의 마지막 경기는 화려하고 치열했던 테니스 인생을 축약해 담은 한 편의 드라마였다.

윌리엄스는 지난 3일 미국 뉴욕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센터에서 열린 US오픈 여자 단식 3회전에서 아일라 톰리아노비치(46위·미국)에게 1-2(5-7 7-6 1-6)로 패했다. 지난달 미국 패션 잡지 '보그'와 인터뷰하며 이번 대회를 끝으로 은퇴할 계획을 내비쳤던 윌리엄스는 경기 후 "난 호주를 좋아한다"는 농담으로 내년 호주오픈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 싶더니, "내 생애 가장 놀라운 경험과 여정이었다. 새로운 버전의 세리나, 엄마가 되기 위해 준비할 것"이라며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경기였음을 시사했다.

윌리엄스는 여자 테니스 역사에서 위대한 선수를 꼽으라면 세 손가락 안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전설이다. 네 살 때 아버지의 권유로 한 살 많은 언니 비너스와 함께 테니스를 시작한 그는 1999년 만 17세 나이로 US오픈을 우승한 뒤 20년 넘게 세계 여자 테니스의 정점으로 군림했다. 메이저대회만 23번을 우승해 24번을 우승한 마거릿 코트(호주·은퇴)에 이어 역대 2위 기록을 갖고 있다. 프로 선수들의 메이저대회 출전이 허용된 1968년 이후로는 최고 기록이다. 남자 테니스 기록 보유자인 라파엘 나달(스페인·22회)보다 한 번 더 많다.

3시간5분이 걸린 윌리엄스의 마지막 경기는 왜 그가 전설인지 보여주는 명승부였다. 특히 세트스코어 1-1에서 맞은 3세트에서 게임스코어 1-5로 끌려가 패색이 짙었음에도 마지막 톰리아노비치의 서브 게임 때 무려 8번이나 듀스 접전을 펼치며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장면은 탄성을 자아내기 충분했다.

윌리엄스는 테니스 역사에서 상징적인 존재다. 그보다 더 좋은 기록을 낸 선수는 있어도, 코트 밖 영향력이 그보다 더 컸던 선수는 전무했다. 그는 테니스계의 투사였다. 윌리엄스는 테니스를 넘어 전 사회에 흑인과 여성 인권 신장에 지대한 공로를 세웠다. 테니스는 오랫동안 백인들의 스포츠로 불려왔다. 1958년 US오픈에서 우승한 알테아 킵슨(미국)을 끝으로 오랜 기간 흑인 여자 선수가 메이저대회에서 정상에 서는 일은 없었다. 그러다 1999년 US오픈을 우승한 윌리엄스의 등장으로 역사가 바뀌었다. 장기간 집권한 윌리엄스를 보며 자란 흑인 여자 선수들은 그를 롤모델로 삼아 '나도 윌리엄스처럼 될 수 있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특히 윌리엄스는 2016년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이 한창일 때 앞장서서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등 선수생활 내내 인종차별에 적극 맞섰다. 2001년 미국 인디언웰스에서 열린 BNP 파리바오픈 결승에서 인종차별이 섞인 야유를 듣자 14년 동안 이 대회를 보이콧하기도 했다.

그는 메이저대회 남녀 동일 상금과 관련된 남자 선수들의 공격에도 선봉에 서서 맞서 싸웠다. 2016년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가 남녀 동일 상금에 불만을 제기하자 "만약 내게 아들과 딸이 있다면, 내 아들에게 '너는 남자니까 더 많은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타이거 우즈, 르브론 제임스, 미셸 오바마 같은 유명 인사들이 앞다투어 찬사를 보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주간 스포츠 소식

[스포츠JOB아먹기(90) 임다연] '프로N잡러' 수영인, 은퇴선수 모범사례

<http://www.sportsq.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091>

"스포츠레저시설 이용하고 경품 받으세요"...경북 액티비티 투어 행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9/785572/>

MZ세대 골프 열풍... 네이버 스포츠 N골프도 함께한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902513489?OutUrl=naver>

69개 스포츠클럽 문체부 지정...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01_0001999083&cID=10501&pID=10500

경기도, 10월에 스포츠 체험행사 'DMZ 런' 개최

<https://www.yna.co.kr/view/AKR20220831048800060?input=1195m>

'서울어울림체육센터' 착공... "공평한 스포츠 참여 보장" (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20830047151004?input=1195m>

16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한 조폭 등 무더기 검거

<https://www.nocutnews.co.kr/news/5811222>

"올 가을 전남에서 안전한 이색 스포츠 즐기세요"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90110060897004>

'120만 수원시민의 스포츠 축제' 제66회 수원특례시체육대회 개막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16528>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